

‘페퍼스’ 또 풍파... 이번엔 사령탑 날아갔다

아헨 김 감독, 4개월만 돌연 사퇴
美 돌아가... 코보컵 지휘봉 ‘미정’
‘이고은 FA 촌극’ 빚은지 55일만
외인 대마 젤리 소지 등 잡음 계속

이쯤 되면 페퍼스의 새 시즌을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은 설렘이 아닌 근심일 것 같다. 프로배구 여자부 막내인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배구단의 비시즌에 또 풍파가 닥치며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엔 데뷔전도 치르지 않은 사령탑이 사라졌다.

26일 페퍼저축은행 배구단에 따르면 아헨 김 감독이 가족과 관련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임 의사를 전달했으며 구단은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지난 23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아헨 김 감독은 지난 24일 비행기편을 이용해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페퍼저축은행의 제2대 감독으로 선임된 지 4개월, 본격적인 팀 훈련을 지도한 지는 1개월 만이다.



아헨 김(오른쪽) 페퍼저축은행 제2대 감독이 돌연 사퇴했다. 사진은 아헨 김 감독이 구단과 계약 종료에 합의하기 나흘 전인 지난 19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정상적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던 모습.

이 사실을 알리는 김동연 단장 명의의 입장문에는 팬들에 대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일절 없었다.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하고 사라져버린 사령탑의 앞길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는 덕담만 담겼다.

갑작스러운 사퇴인 만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KOVO컵에 대한 대비책도 전혀 없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당분간 이경수 감독 대행 체제로 훈련을 진행하고

빠른 시일 내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라면서 “KOVO컵 전 선임이 목표지만 변수가 많은 만큼 현재 확실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팀이 2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음에도 새로 부임한 아헨 김 감독의 데이터 활용과 선수 육성 능력을 기대했던 페퍼저축은행 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더욱이 페퍼저축은행은 이미 세터 이고은으로 인해 한 차례 흥역을 치렀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4월 FA 최대어 중 한 명이었던 국가대표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아를 영입하면서 보상선수 보호명단에 이고은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명받았다.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는 이고은이 직전 시즌 한국도로공사에서 FA 이적해온 것과 고액 연봉자임을 이유로 지명되지 않을 것을 제외 이유로 들었지만 지명 후 트레이드 가능성 등을 열어두지 않은 분명한 전략 실패였다.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이고은을 보상선수로 지명 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주전 세터를 잃은 페퍼저축은행은 다시 이고은을 데려오기 위해 주전 미들블로커 최가은에 2023-2024시즌 신인 1라운드 지명권까지 내주는 촌극을 빚었다.

국가대표 주장까지 맡은 박정아를 영입하고 외국인 선수 야스민 베다르트, 아시아쿼터 엠제이 필립스의 지명으로 봄 배구에 도전할 만한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고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아마추어적 행정에 팬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시즌

중에도 아마추어적인 행정으로 갖가지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 3월에는 외국인선수 니아 리드가 입국 당시 대마 성분이 함유된 CBD 젤리를 소지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진 뒤 입국 규제 조치를 받으면서 사실상 퇴출됐다.

구단은 니아 리드가 입국한 직후 불법 물품 소지 적발 사실을 알았지만 6개월가량이 사실을 철저히 함구했다. 니아 리드는 출입국사무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조사가 진행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르다 뒤늦게 한국을 떠났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김형실 전 감독이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실상 V-리그에서 퇴출된 이재영의 영입을 타진하며 논란을 빚었다.

이에 팬들은 페퍼저축은행 본사와 광주 시청에 근조 화환을 배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음에도 끝내 사과는 없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장매튜 구단주와 김동연 단장 등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들은 깨달은 점이 없는 모양새다. 페퍼저축은행은 창단 후 세 번째 시즌에 돌입하기도 전에 제3대 감독을 찾아야 하는 신세가 됐고, 팬들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한국, U-17 아시안컵 4강행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출전권 획득
29일 사우디·우즈베크 승자와 4강전

한국 남자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2023 U-17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하며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출전권을 획득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25일(이하 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8강전에서 개최국 태국을 상대로 4-1 대승을 거두며 4강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은 대회 4위까지 주어지는 2023 FIFA U-17 월드컵 티켓을 확보하며 2회 연속 U-17 월드컵에 나서게 됐다. 월드컵은 오는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다.

한국은 오는 29일 오후 11시 사우디아라비아-우즈베키스탄 승자와 4강전을 벌인다.

한국이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 21년 만에 U-17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게 된다. 한국은 1985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에서 두 차례(1986, 2002)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가장 최근 열린 2018년 대회에서는 4강에 진출했고, 이듬해 U-17 월드컵에서 엄지성(광주FC), 정상빈(미네소타), 이태석(FC서울) 등의 활약으로 8강에 올랐다.

한국은 이날 태국과의 8강전서 초반부터 압도적인 점유율로 주도권을 쥐며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다.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문전으로 올라온 센터백 강민우(울산현대)가 백인우(용인시축구센터U18)의 오른발 프리킥을 헤더골로 연결했다.

그러나 전반 16분 태국의 역습에 실점하며 동점골을 내줬다. 동점골을 허용한 뒤 잠시 흔들렸던 한국은 전반 36분 또 다시 세트피스를 통해 리드를 잡았다. 김명준(포철)이 골문으로 쇄도하며 윤도영(충남기계공고)의 프리킥을 오른발로 살짝 방향을 바꿔놓아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한국은 후반 24분 윤도영이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태국의 추격 의지를 꺾었고, 후반 39분 김현민(영등포공고)의 쐐기골로 태국을 주저앉혔다. **최동환 기자**



한국 남자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26일(한국시간) 태국 빠툼타니스타디움에서 끝난 개최국 태국과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8강에서 4-1로 승리한 뒤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KIA 양현종·최지민·소크라테스·최형우 ‘베스트 12’

정해영, 선수단 투표서 고배

KIA타이거즈가 투수 양현종과 최지민, 외야수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최형우를 올스타 ‘베스트 12’로 배출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3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 ‘베스트 12’ 선정 최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KIA 양현종은 선발투수 부문에서 팬 투표 92만7045표와 선수단 투표 23표를 득표해 총점 29.09를 획득했다. 선수단 투표에서 키움 안우진이 164표, NC 페디가 99표, 한화 문동주가 47표를 받으며 4위에 머물렀으나 팬 투표에서 네 선수를 크게 따돌렸다.

최지민은 중간투수 부문 팬 투표에서 109만2133표로 KIA 선수들 중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소크라테스도 외야수



양현종, 최지민, 소크라테스, 최형우

부문에서 팬 투표 109만6488표를 받으며 100만 고지를 돌파했다.

최형우는 KIA 선수들 중 유일하게 팬 투표와 선수단 투표 모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명타자 부문에서 팬 투표 102만1304표, 선수단 투표 168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총점 44.08을 기록했다.

팬 투표 1차와 2차 중간집계 모두 마무리 투수 부문 선두를 달렸던 정해영은 선수단 투표에서 LG 고우석(총점 29.88)

에게 자리를 내줬다. 정해영은 팬 투표에서 91만2951표를 득표했으나 선수단 투표에서 33표로 고우석(180표)에게 크게 뒤지며 총점 29.50에 머물렀다.

한편 KBO는 2023 신한은행 SOL KBO 올스타전에 출전할 드림 올스타 김원형(SSG) 감독과 나눔 올스타 홍원기(키움) 감독의 추천 선수는 각 팀 13명씩 총 26명을 선정해 추후 발표한다.

한규빈 기자

영암민속씨름단, 김민재 백두·최정만 금강장사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

영암군민속씨름단이 2023 강릉단오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급과 금강급 등 두 체급을 석권했다.

‘모래판 괴물’ 김민재(21·영암군민속씨름단)는 지난 25일 강릉단오행사장 내 씨름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백두장사(140kg 이하) 결정전(5판 3선승제)에서 정창조(수원시청)를 3-0으로 제압하고 황소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로써 김민재는 이 대회 2연패를 포함

해 개인 통산 5번째(2022 단오·천하장사, 2023 설날·보은·단오) 백두장사에 올랐다. 또 올시즌 5번의 대회 중 4개 대회 정상에 등극했다.

‘금강의 호랑이’ 최정만(33·영암군민속씨름단)은 지난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금강장사(90kg급이하) 결정전에서 임태혁(수원시청)을 3-2로 누르고 황소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번 우승으로 최정만은 이 대회 2연패 달성과 함께 개인 통산 18번째 금강장사 타이틀을 거머쥐며 이 부문 최강자임을 알렸다. **최동환 기자**